

현안과제연구
13.2.26

2013년 충남 경제성장 및 수출전망

연구수행: 김양중



CDI 충남발전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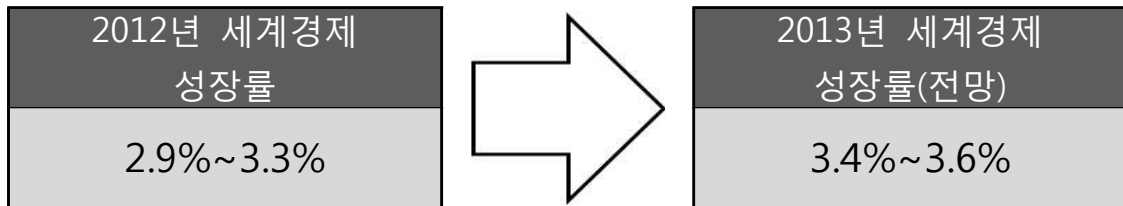
2013년 충남 경제성장 및 수출전망

〈목 차〉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2013년 세계 경제 전망 | 1 |
| 2. 2013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 | 3 |
| 3. 2013년 충남 경제 전망 | 7 |
| 4. 2013년 충남의 수출 및 GRDP 예측 | 10 |
| 5. 요약 및 결론 | 14 |

1. 2013년 세계 경제 전망

1) 세계 경제 여건



- 미국·중국 등을 중심으로 올해보다는 개선된 흐름을 보이겠으나 회복 속도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
- 선진국은 정책대응 강화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동시다발적 긴축, 고용개선 지연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약할 전망
 - 미국은 주택시장·경제주체 심리가 개선되는 등 회복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나 재정절벽, 고용개선 지연 등 하방위험 상존
 - 일본은 대지진 복구지출 등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점차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
 - 유로지역은 금융불안과 재정긴축 등으로 실물경제 침체 지속
- 중국 등 신흥국은 내수 확대와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책여력 등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전망
 - 다만, 글로벌 경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선진국 경기 회복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보이기는 어려움

<표 1> 세계 경제전망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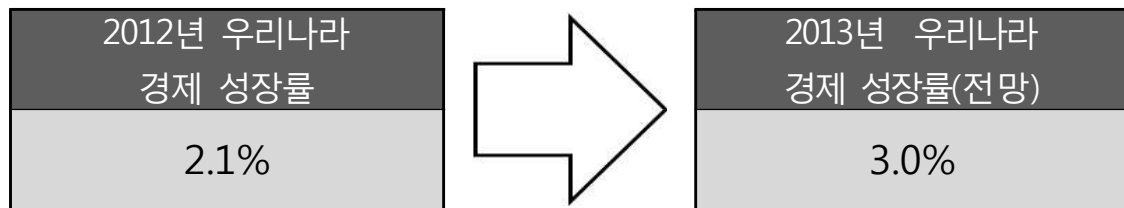
| | 2012년 | | 2013년 | |
|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|
| | IMF | OECD | IMF | OECD |
| 세계경제성장률 | 3.3 | 2.9 | 3.6 | 3.4 |
| 미국 | 2.2 | 2.2 | 2.1 | 2.0 |
| 유로 | △0.4 | △0.4 | 0.2 | △0.1 |
| 일본 | 2.2 | 1.6 | 1.2 | 0.7 |
| 중국 | 7.8 | 7.5 | 8.2 | 8.5 |

자료: IMF world Economic Outlook('12.10dnjf), OECD Economic Outlook('12.11월)

- 유로지역 위기 장기화와 미국의 급격한 재정긴축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여전히 큰 상황
- 유로지역은 정책당국의 대응 등으로 금융불안이 다소 완화되었으나, 재정건전성 회복 지연, 성장 정체 등 위기국면이 장기화 양상
 - 스페인 지방재정·은행부실 우려, 이탈리아 등 위기전염 가능성 등에 따라 당분간 유로존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
 - 다만, 재정통합·금융통합 등 위기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합의 등 정책대응이 강화될 경우 시장불안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
- 미국의 대규모 재정긴축(fiscal cliff) 완화방안 마련이 지연될 경우 경제가 위축될 우려
 - 다만, 급격한 재정긴축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할 때, 정치권이 절충안을 마련하여 재정긴축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음

2. 2013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¹⁾

1) GDP 성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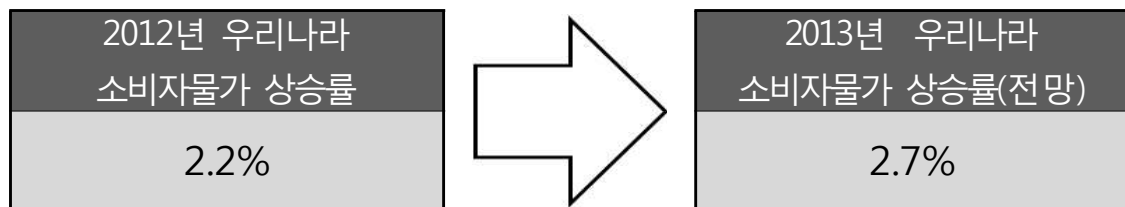
- 세계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되면서 우리 경제는 올해(2.1%)보다 개선된 연간 3.0% 성장 예상
- 상반기에는 미국 재정절벽, 유럽 재정위기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이 완만한 수준에 그칠 전망
 - 올해 하반기 재정보강 대책의 효과가 이어지고 내년 재정 조기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1/4분기 성장률 흐름 보완 예상
-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개선,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경기 흐름이 다소 개선될 전망
- 대외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수출이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할 전망
- 내수는 민간소비가 성장에 안정적으로 기여하겠으나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투자의 경우 약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

1) 우리나라 2013년 경제 전망은 기획재정부의 “2013년 경제전망”에서 요약·발췌하였음

□ 미국 재정절벽, 유럽 재정위기 심화, 양적완화에 따른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등은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

○ 한편, 유로존 통합의 의미 있는 진전과 미국 재정긴축 완화가 조기 합의될 경우 성장세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가능성도 상존

2) 소비자 물가



□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현재의 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국제원자재 가격 변동폭 확대 등 공급측 불안요인 상존

○ 수요측면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 안정으로 기대 인플레이션도 점차 하락하는 등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

○ 공급측면은 국제유가·곡물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

– 중동 정세불안, 기상이변 등에 따라 상승세가 재개될 경우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

□ ‘13년 소비자물가는 연간 2.7% 상승 전망

○ 낮은 수요압력에도 불구하고 공급측 불안요인 등으로 ‘12년 보다 높은 연간 2.7% 상승

3) 수출입과 경상수지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2년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율 | → | 2013년 우리나라 수출입 증가율(전망) |
| 수출 $\Delta 1.3\%$ | | 수출 4.3% |
| 수입 $\Delta 1.0\%$ | | 수입 4.6% |

□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'12년($\Delta 1.3\%$)에 비해 개선된 4.3% 증가 전망

○ 주요국 정책대응,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글로벌 수입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세계교역 증가율이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

- 우리 수출에 2~4개월 선행하는 OECD 선행지수가 10월 들어 상승하는 등 수출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조짐

○ 대중국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아세안 등 신흥시장 수출도 호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EU 수출 부진도 다소 완화

- FTA 상대국의 경기회복시 관세인하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

○ 반도체·LCD 등 IT제품 중심으로 수출단가 하락세가 완화되고 올해 해외생산 확대로 수출이 급감했던 휴대폰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여겨짐

- 선박은 과거 부진한 수주실적의 영향이 지속되며 부진 예상

- 수입은 수출과 내수의 완전한 회복에 따라 수입수요가 증가하면서 '12년($\Delta 1.0\%$)에 비해 개선된 4.6% 증가 전망
- 수출이 완전하게 회복되면서 전체 수입중 약 40%를 차지하는 수출용 원·부자재 수요도 점증
 - 소비가 완전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,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 될 경우 설비투자도 증가하면서 내수용 수입도 증가 예상
-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단가는 소폭 하락할 전망
- 상품수지는 '13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함께 증가세를 시현하는 가운데 흑자 폭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 예상
- 서비스수지는 여행·사업서비스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적자 전환 예상
- 여행수지는 일본 대지진이후 관광대체 수요의 영향이 축소되어 올해 보다 적자가 확대되고, 사업서비스도 수출의 완전한 개선에 따라 적자 확대 예상
- 경기회복에 따라 국내기업 실적이 올해보다 개선되어 배당·이자지급 등이 증가하면서 본원소득수지 흑자도 소폭 축소 예상
- 해외송금 등 이전소득수지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의 적자 예상
- 경상수지는 '12년(420억달러 흑자)에 비해 흑자폭이 줄어든 300억 달러 흑자 전망

<표 2> 경상수지 전망

(단위: 억달러)

| | '12년 | | | '13년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|-----|------|
| | 상반기 | 하반기 | 연간 | |
| 경상수지 | 138 | 282 | 420 | 300 |
| 상품수지 | 111 | 269 | 380 | 345 |
| 서비스·본원이전소득수지 | 26 | 14 | 40 | △45 |

자료: 2013년 경제전망, 기획재정부

3. 2013년 충남 경제 전망²⁾

- 2013년 중 충남지역 경제는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 따라 작년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상존하는 불확실성 등으로 회복속도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

1) 제조업 생산

- 디스플레이는 금년 선진국 중심의 LCD TV 수요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,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의 고화질 패널 수요 증대 등으로 생산이 소폭 증가할 전망
- 대형 LCD 패널의 공급과잉 완화, RETINA 디스플레이, OLED TV 시장 등 고급패널 수요확대에 대응한 설비투자 등을 바탕으로 생산 증가세를 보일 전망

2) 2013년 충남경제 전망은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의 “2013년 대전충남지역 경제전망”에서 요약·발췌하였음

- 반도체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IT기기 수요 증가, 윈도우즈8 출시('12.10월) 등으로 생산 증가 전망
 -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산으로 시스템 반도체(모바일용 Application Processor 등)의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
- 자동차는 주야간 2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행태가 전환되고 해외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소폭 감소할 전망
 - 내수는 신차효과 약화,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소폭 감소 하겠으며, 수출은 원화절상, 선진국의 수요 정체 및 해외 생산 확대 (현대차, '12.7월 중국 3공장, 9월 브라질 공장 가동) 등으로 둔화 될 전망

2) 소비자 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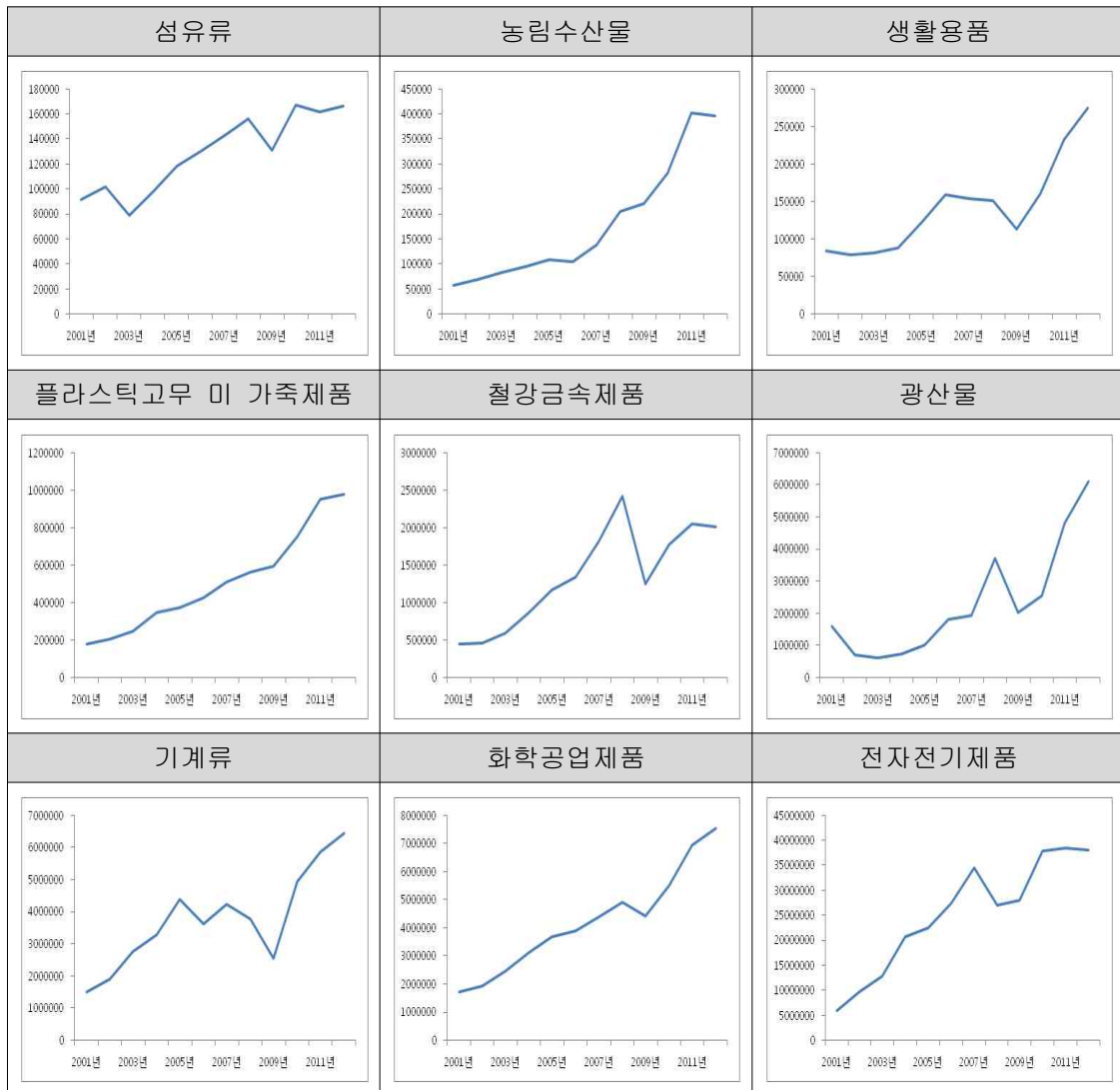
- 소비자물가는 대내외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수요부진,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상승 압력이 완화될 전망
- 다만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및 공공요금 등 잠재적 인플레이 요인들이 현실화되면서 금년보다는 물가상승률이 확대될 전망
 -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국제곡물가격 상승이 식품 등 상품가격에 반영되고 공공요금의 낮은 원가보상을 등으로 인상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

3) 수출

- 반도체는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, 신제품 출시(윈도우즈 8, 10월 말) 등으로 증가 전망

<표 3> 충남 산업별 수출추이

(단위: 천불)



- 디스플레이는 선진국의 완만한 수요회복, 중국의 절전형 가전제품 보조금 지급('12.6~'13.5월), 태블릿 PC 시장 확대 등으로 증가 전망

- 석유화학제품은 신흥국의 견조한 수요 지속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유가 상승 둔화, 중동 및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 등으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
- 자동차 및 부품은 일본업체와의 경쟁 심화 및 해외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
- 국가별로 살펴보면 대중국 수출은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대유럽, 대미국 수출은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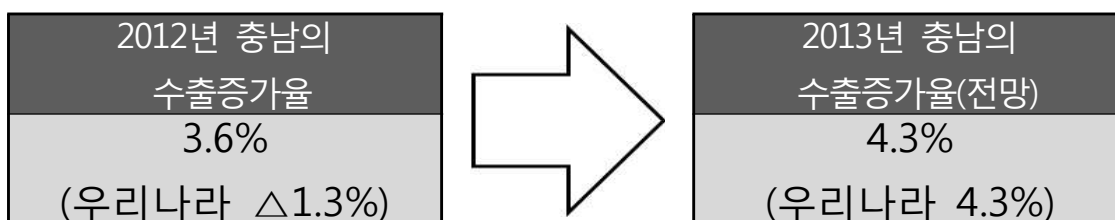
4. 2013년 충남의 수출 및 GRDP 예측

1) 연구의 방법

- 충남의 수출입 예측은 한국무역협회의 지역별 수출입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ARIMAX(Auto-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with eXtra)모형을 이용하여 분석
- 예측모형은 크게 경제모형과 시계열 예측모형으로 구분
 - 경제모형은 경제변수에 수치를 주어 정량화하고 변수 간에 관계를 설정한 후 경기에측모형을 만들어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
 - ARIMA(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)모형은 불안정적인 시계열을 차분을 통해 안정성을 회복시킨 후, 자기변수의 과거값으로 회귀식을 구성하는 AR과정과 모형추정 잔차의 이동평균 함수형태로 표현되는 MA과정의 결합함수로 추정해 내는 방법론임
- 본 연구에서는 기타 변수를 감안한 ARIMAX 모형을 통해 미래추세를 파악

2) 수출 예측

- ARIMAX³⁾모형 이용하여 충남의 수출을 예측한 결과 2013년 충남의 수출은 전년대비 4.3% 증가한 647억불에 달할 것으로 여겨짐



<표 4> 충남의 수출추이 및 예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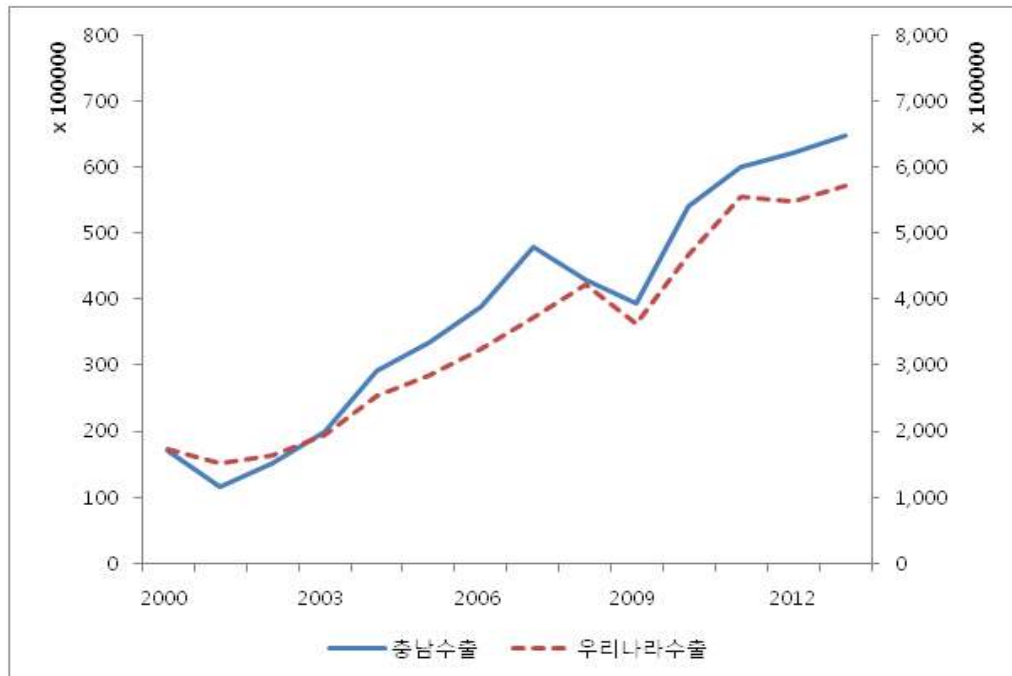
(단위: 천불, %)

| | 충남수출 | 충남 수출 연 평균 증가율 | 우리나라 수출 | 우리나라 수출 연평균 증가율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2000 | 16,990,792 | - | 172,267,510 | - |
| 2001 | 11,652,525 | -31.4 | 150,439,144 | -12.7 |
| 2002 | 15,150,513 | 30.0 | 162,470,528 | 8.0 |
| 2003 | 19,806,013 | 30.7 | 193,817,443 | 19.3 |
| 2004 | 29,271,550 | 47.8 | 253,844,672 | 31.0 |
| 2005 | 33,519,624 | 14.5 | 284,418,743 | 12.0 |
| 2006 | 38,961,041 | 16.2 | 325,464,848 | 14.4 |
| 2007 | 47,822,882 | 22.7 | 371,489,086 | 14.1 |
| 2008 | 42,936,207 | -10.2 | 422,007,328 | 13.6 |
| 2009 | 39,427,823 | -8.2 | 363,533,561 | -13.9 |
| 2010 | 54,053,981 | 37.1 | 466,383,762 | 28.3 |
| 2011 | 59,953,754 | 10.9 | 555,213,656 | 19.0 |
| 2012 | 62,095,477 | 3.6 | 548,075,929 | -1.3 |
| 2013(전망) | 64,741,451 | 4.3 | 571,643,194 | 4.3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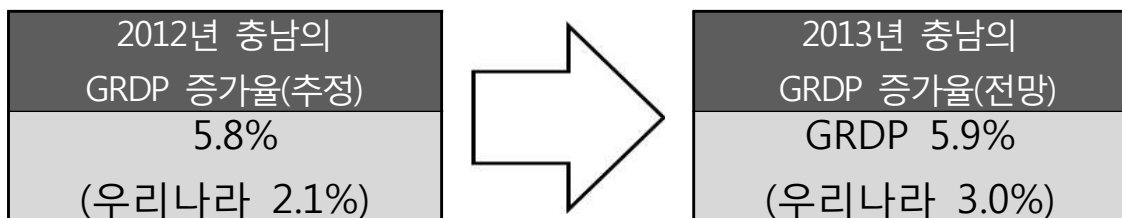
3) 1차 차분 후 우리나라 수출변수와 미국 금융위기, 유럽 재정위기 더미변수를 포함하여 분석

[그림 1] 충남의 수출추이 및 예측

(단위: 천불, %)



3) GRDP 예측



□ ARIMAX⁴⁾모형 이용하여 충남의 2013년 GRDP를 예측한 결과 2013년 충남의 GRDP는 전년대비 5.9% 증가한 88.9조원에 달할 것으로 여겨짐

4) 1차 차분 후 우리나라 GDP변수, 충남의 수출변수, 미국 금융위기, 유럽 재정위기 더미 변수를 포함하여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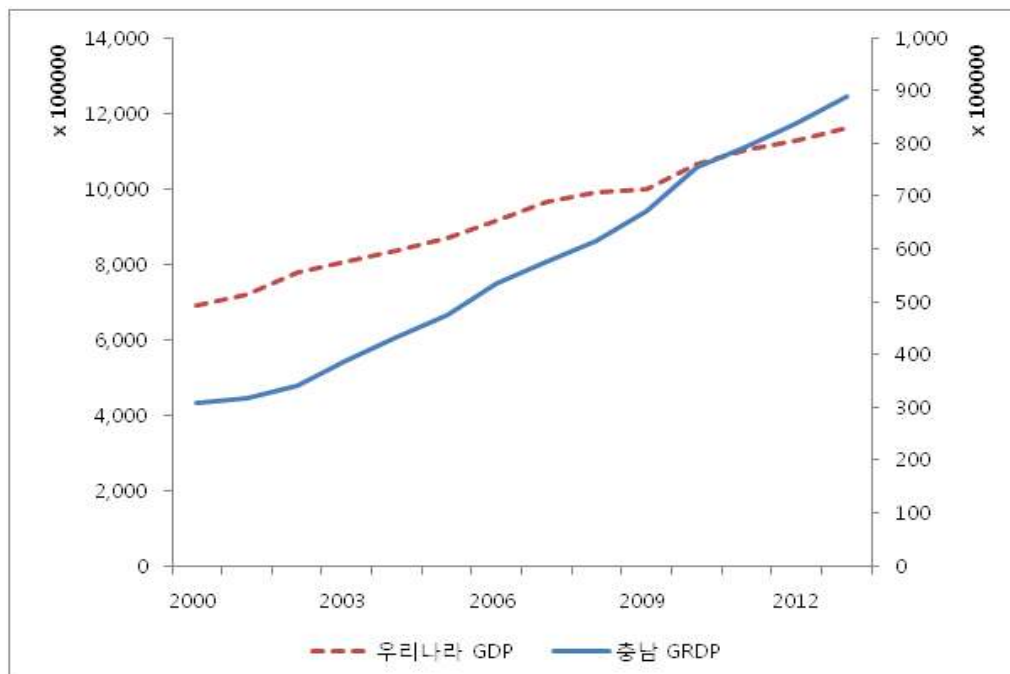
<표 5> 충남의 GRDP 추이 및 예측

(단위: 백만, %)

| | 충남 GRDP | 연평균 증가율 | 우리나라 GDP | 연평균 증가율 |
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
| 2000 | 30,963,282 | | 691,467,810 | |
| 2001 | 31,816,724 | 2.8 | 718,652,029 | 3.9 |
| 2002 | 34,185,883 | 7.4 | 778,485,333 | 8.3 |
| 2003 | 38,783,631 | 13.4 | 806,524,079 | 3.6 |
| 2004 | 43,327,332 | 11.7 | 834,771,320 | 3.5 |
| 2005 | 47,497,309 | 9.6 | 869,304,594 | 4.1 |
| 2006 | 53,505,262 | 12.6 | 914,018,451 | 5.1 |
| 2007 | 57,563,405 | 7.6 | 965,297,715 | 5.6 |
| 2008 | 61,568,588 | 7.0 | 991,677,406 | 2.7 |
| 2009 | 67,054,755 | 8.9 | 999,311,446 | 0.8 |
| 2010 | 75,606,540 | 12.8 | 1,067,217,790 | 6.8 |
| 2011 | 79,326,280 | 4.9 | 1,103,587,118 | 3.4 |
| 2012(추정) | 83,932,738 | 5.8 | 1,126,762,447 | 2.1 |
| 2013(전망) | 88,865,280 | 5.9 | 1,160,565,321 | 3.0 |

[그림 2] 충남의 GRDP 추이 및 예측

(단위: 천불, %)



5. 요약 및 결론

<표 6> 2013년 경제성장 및 수출 전망

| | 2012 | 2013(추정) | 증감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|
| 세계경제 성장률 | 2.9%~3.3% | 3.4%~3.6% | + |
| 우리나라 GDP 성장률 | 2.1% | 3.0% | + |
|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| △1.3% | 4.3% | + |
| 충남의 GRDP 성장률 | 5.8% | 5.9% | + |
| 충남의 수출증가율 | 3.6% | 4.3% | + |

-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수출과 GRDP 예측을 위해서 충남의 경제변수 등을 감안한 ARIMAX 모델을 활용
- 분석결과 2013년 충남의 수출은 전년대비 4.3% 증가한 647억불이 예상 되고, 충남의 GRDP는 5.9% 증가한 88.9조원으로 예상
- 충남의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0.9%에서 2012년 3.6%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으나 2013년은 4.3% 성장이 예상되어 수출이 다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짐
- 충남의 GRDP 증가율은 2010년 12.8%에서 2011년 4.9%까지 급격하게 떨어졌으나 2013년은 5.9%의 성장이 예상됨
- 2013년은 우리나라나 충남에게 있어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여겨지나, 회복속도는 제한적

- 충남은 수출의존도가 높아 대외충격에 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해야하며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성장위축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임
 - 충남 지역경제는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외부적인 충격에 매우 취약한 실정임
-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위기, FTA, 기후변화협약 등 무역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,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
- 충남도 기업이 한·미 FTA, 한·EU FTA 등 기발효된 FTA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, 다가올 한·중 FTA도 미리 대비해야 함
- 아울러 중소기업이 충남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, 영세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어야 할 것임
 - 특히 지방경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중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분야⁵⁾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이들의 지원강화를 통해 경제위기가 민생경제부문의 위축을 가져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함
- 그러나 ARIMAX 모형은 갑작스런 경기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, 재정위기 등 상황에 따라 예측범위를 벗어날 수 있음
- 또한 세종시 효과를 감안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⁶⁾라 할 수 있음

5)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음식, 숙박, 이·미용업, 운송, 도소매, 학습·학원 및 다양한 가사 서비스업 등을 말하는데, 경제위기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감소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특성이 있음

6)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아직까지 세종시를 충남에 포함하고 있어 세종시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

<참고 문헌>

2013년 경제전망(2012.12), 기획재정부

2013년 대전충남지역 경제전망(2012.12),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